

한부모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적 관여의 관계에서 사회관계망 기능의 매개효과: 양부모 가정 어머니와의 비교 연구

신 혜 진[†]

서울대학교

한 인 영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가 맺는 사회관계망 기능 특성이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적 관여 행동을 어떻게 매개하는지 한부모 가정 어머니와 양부모 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자녀로 둔 한부모 가정 어머니 132명과 양부모 가정 어머니 164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적 관여 행동을 교육환경제공, 학업지도, 자녀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가정 중심 교육관여와 자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참관, 교육활동지원, 교원과의 의사소통 등 학교 중심 관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기능 특성이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적 관여 사이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한부모 어머니 집단에서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기능 특성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정관여의 관계, 그리고 학교관여와의 관계를 각각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부모 어머니 집단에서는 어머니 사회관계망의 기능 특성이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정관여와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으나, 학교관여와의 관계에서는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한부모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지원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교육적 관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 개입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한부모 가정 어머니, 부모 사회관계망의 기능, 교육적 관여

[†] 교신저자 : 신혜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BK21 역량기반교육혁신 연구사업단,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E-mail : hjshin2011@snu.ac.kr

급속한 사회변화로 가족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행섭, 김진숙, 2008; 최윤정, 이시연, 2007). 한부모 가정이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가리킨다(통계청, 2009).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한부모 가구 수는 137만 가구로 2000년에 비해 2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남성 한부모 가구수가 0.6% 증가한 데 비해 여성 한부모 가구주의 비중은 3.4% 늘어나(통계청, 2009), 여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최윤정, 이시연, 2007).

여성 한부모 가정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빈곤과 함께 자녀교육 문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행섭, 김진숙, 2008; 정소희, 2006). 어머니 홀로 자녀 양육과 생계를 담당함에 따라 역할 과중을 경험하고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어 보호나 지도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이애재, 2000).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부모 어머니들은 특히 자녀의 올바르게 못한 행동을 통제하고 훈육하는 일, 사춘기를 맞이하여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는 자녀에게 적절한 조언이나 아버지로서의 성역할 모델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점 등을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호소하였다(최명선, 류진아, 박희정, 2007). 더불어,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 등은 한부모 여성가장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고립감과 무력감마저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하영, 이윤주, 김경화, 2008; 엄미선, 전동일, 2006; 최윤정, 이시연, 2007).

여성 한부모에게 부과된 심리·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은 결국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의 발달과 성취를 저해할 수 있다(엄미선, 전동일, 2006; 이주리, 2010). 실제로 빈곤과 자녀 양육 부담에 직면한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어머니는 일관성이 부족한 양육태도를 보이거나 자녀에게 비지지적이며 처벌적인 훈육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왔다(김영희, 한경애, 1996; 보건복지부, 2006; Simons, Beaman, Conger, & Chao, 1993).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 가정 자녀의 인식을 비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혼가정의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이순형, 이옥경, 민미희, 2006), 자신의 부모를 권위주의적이지만 민주적이지는 못한 편으로 지각하였다(이혜승, 2004).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양부모 가정 자녀에 비해 대체로 문제행동을 더 빈번히 보였으며(Jablonska & Lindberg, 2007),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위축감과 낮은 학업성취도(오승환, 2002), 그리고 학교부적응 등의 어려움(황은숙, 2007)을 경험하는 빈도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한부모 어머니가 직면하는 심리적, 경제적, 물리적 어려움을 완화시킴으로써 부모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 한부모들은 자신이 맺고 있는 사회 관계망으로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많은 도움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심, 광지영, 2010; 엄미선, 전동일, 2006).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이란 개인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간의 연결망을 의미하는데(Cochran, 1993), 많은

연구자들이 부모의 사회관계망을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박영애, 원효중, 2003; 이은혜, 이미리, 1996; Ceballo & McLoyd, 2002; Cochran & Niegro, 1995; Coleman, 1988; Sheldon, 2007). 이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의사결정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신혜진, 2011 재인용). 즉, 부모는 친족이나 다른 학부모들과 사회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나 자녀를 대신 돌보아주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도움을 주고 받고(신혜진, 한인영, 2011 재인용; 조혜선, 2004; Coleman, 1988),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정서적, 심리적 고충을 털어놓으며 위안과 격려를 얻는다(이윤주, 2010; 이은혜, 이미리, 1996).

사회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이란, 이와 같이 부모가 관계망 내 구성원과 공유하는 자원의 유형과 그 자원을 교류하는 정도를 가리킨다(곽정인, 2000).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사회관계망 기능을 도구, 정서, 정보 등 세 가지 측면에서의 지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박미경, 황성철, 2010). 우선, 도구적(물질적) 지원 기능은 직장생활, 가사,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데서 오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물리적,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정서적 지지 기능은 양육자로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 존중, 관심과 격려의 표현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정보 교류의 기능은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뜻한다(곽정인, 2000; 박영애, 원효중, 2003; 이은혜, 이미리, 1996; 이은혜, 1997; Sheldon, 2007).

그동안 부모 사회관계망 기능의 효과는 주로 부모 효능감이나 양육태도, 또는 일반적인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왔다(박영애, 원효중, 2003; 이은혜, 이미리, 1996; 엄미선, 전동일, 2006). 예컨대, 사회관계망을 통해 심리적, 물리적으로 충분히 지원받고 있다고 지각한 한부모 어머니들에게서 자녀를 합리적이며 일관성 있게 지도하고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보이지 않는 정도로 측정된 부모역할 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최윤정, 이시연, 2007). 그러나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양육행동은 자녀의 학업 성취와 발달과업의 수행을 돕기 위해 주로 부모가 자녀 학교와 협력하고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난다(심미옥, 2003). 따라서 학령기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사회관계망의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보편적인 양육행동보다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여하는 유형과 그 수준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신혜진, 한인영, 2011).

부모의 교육적 관여는 자녀의 발달과 성취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적 지원과 참여활동을 의미한다(변수용, 김경근, 2008; 심미옥, 2003; 신혜진, 2011 재인용, 이세용, 2000; Jeynes, 2003; Lee & Bowen, 2006).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적 관여를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에 따라 가정중심 관여와 학교중심 관여로 구분하였다(김정화, 2004; 윤재열, 2009; Downey, 2006; Hill & Tyson, 2009). 가정중심 관여는 자녀의 학습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부모가 가정에서 실행하는 지원 활동을 가리킨다. 구체적인 예로는 자녀의 숙제와 생활습관을 지도하는 일, 학업성취의 중요성 및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학교중심 관여는 부모가 교사와 자녀의 문제를 상의하거나 자녀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교내 행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일과 같이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활동을 의미한다(김정화, 2004; 윤재열, 2009; Epstein, 1987; Hill & Tyson, 2009).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여하는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다(변수용, 김경근, 2008; 신혜진, 2011; 심미옥, 2003). 학부모로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협력하고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많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의 교육에 관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김영희, 2002; 이두휴, 2007; Kohl, Lingual, McMahan, 2000). 이는 학력 및 소득 수준이 높은 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거나 담임교사와 직접 면담하며 자녀 문제를 의논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덜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세용, 1998; Lareau, 1987).

이와 대조적으로, 학력과 소득 수준이 낮은 부모, 특히, 배우자가 부재하여 자녀 양육과 생계를 홀로 병행하고 있는 한부모나, 어머니가 취업으로 자녀를 돌볼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 자녀 교육에 관여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관여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변수용, 김경근, 2008; 엄미선, 전동일, 2006; Stevenson & Baker, 1996). 예컨대,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을 살펴본 신혜진(2011)의 연구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정 및 학교에서 자녀의 교육에 관여하는 빈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 수준 및 한부모 여부는 가정관여 수준과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와 부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은 가정 및 학교관여 수준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배경과 함께, 부모가 맺은 사회관계망의 기능적 특성도 교육적 관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조사되었다(박영애, 원효중, 2003; 신혜진, 2011 재인용; 이은혜, 이미리, 1996; Ceballo & McLoyd, 2002; Cochran & Niegro, 1995; Coleman, 1988; Sheldon, 2007). 연구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을 통해 자원과 지지를 활발히 교류하는 부모일수록 자녀 교육에 대한 관여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Sheldon(2007)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타 학부모들과 자녀양육 및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를 자주 나눈 초등학교 학부모일수록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자녀의 교육에 관여하는 수준이 더 높음을 발견하였다.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 신혜진(2011)의 연구에서도 자녀 친구 부모와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도움 및 정보를 활발히 주고 받은 부모일수록 가정 및 학교에서 교육적 관여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부모 사회관계망의 기능 특성과 교육적 관여 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부모 배경 변인을 통제하고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i와 Christ(2007)는 저소득 한부모 어머니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속에서 자녀의 문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요구되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었고, 교사와도 활발하게 협력함으로써 가정에서 자녀에게 읽기와 쓰기를 더 잘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결과를 얻었다(Li & Christ, 2007).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한부모 가정 어머니를 포함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해있는 부모들이 사회관계망을 형성하여 자원과 지지를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을 때,

자녀 교육에 대한 관여 활동 또한 촉진되어,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학업 성취 및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해준다(신혜진,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어머니가 맺은 사회관계망을 통해 얻은 정보, 도구, 정서 지원이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적 관여행동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 살펴본 국내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한부모 어머니의 사회관계망의 지지기능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주로 그 영향력을 양육스트레스(호유연, 2009), 양육부담(엄미선, 전동일, 2006)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 심리(박미경, 황성철, 2010)를 경감시키거나 일반적인 양육태도(박진아, 2009)나 부모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최윤정, 이시연, 2007)를 분석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자녀를 둔 한부모 어머니들이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부모 사회관계망의 기능 특성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자녀 교육에 관여하는 수준 간의 경로를 어떻게 매개하는지 파악하고 한부모 어머니 집단에서의 구조모형을 양부모 어머니 집단의 경우와 비교 검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기능 특성이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정중심 관여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구조모형은 한부모 어머니와 양부모 가정 어머니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기능 특성이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교중심 관여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구조모형은 한부모 어머니와 양부모 가정 어머니에 따라 어떠한 차

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배경, 사회관계망 기능, 가정 관여의 부분매개모형 (연구모형)



그림 2.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배경, 사회관계망 기능, 가정 관여의 완전매개모형 (대안모형)



그림 3.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배경, 사회관계망 기능, 학교 관여의 부분매개모형 (연구모형)



그림 4.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배경, 사회관계망 기능, 학교 관여의 완전매개모형 (대안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인천에 소재한 사회복지관 1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서 각 기관을 이용하는 초등학교의 5, 6학년생을 자녀로 둔 한부모 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010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40부가 배부되었으며, 회수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답안을 제외하고 총 132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양부모 가정 어머니에 대한 표본은 서울과 인천지역의 3개 초등학교에 5, 6학년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설문지는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학급별로 담임교사에게 의뢰하여 245부를 배부하였으며, 양부모 가정의 어머니라고 볼 수 없는 응답자와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64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을 살펴보면, 참여자의 연령 평균은 한부모 집단 어머니가 40.99세($SD = 3.78$), 양부모 집단 어머니는 40.66세($SD = 4.97$)였다. 참여자의 학력 분포는 한부모 집단에서 중학교 졸업 이하가 17명(12.9%), 고등학교 졸업이 82명(62.1%), 대학교 졸업이 27명(20.5%), 대학원 이상은 4명(3.0%)였으며, 양부모 집단에서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4명(2.4%), 고등학교 졸업이 80명(48.8%), 대학교 졸업이 73명(44.5%), 대학원 이상이 6명(3.7%)이었다. 직업별 분포는 한부모 집단에서 주부/무직/가사가 26명(19.7%), 생산직이 21명(15.9%), 판매·서비스업이 30명(22.7%), 자영업은 5명(3.8%), 사무직은 21명(15.9%), 전문직이 11명(8.3%), 무응답

이 18명(13.6%)의 순서였으며, 양부모 집단에서는 주부/무직/가사가 74명(45.1%), 생산직이 8명(4.9%), 판매서비스업이 13명(7.9%), 자영업은 14명(8.5%), 사무직은 19명(11.6%), 전문직이 27명(16.5%), 무응답이 9명(5.5%)을 차지하였다.

측정도구

부모의 교육적 관여

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김정화(2004)가 개발하고 윤재열(2009)이 연구에 활용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총 35문항이며,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의 교육적 성취와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및 노력 활동을 실행하는 정도를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가정에서의 교육적 관여는 교육환경 제공(8 문항), 학습지도(5문항), 자녀교육 지원(5문항)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환경 제공은 부모가 자녀에게 학습 준비물을 사주거나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관심을 표현하는 등 교육적 성취를 높이기 위한 여건을 마련해주는 지원을 의미한다. 학습지도는 자녀에게 올바른 학습태도를 가르쳐주고 시간을 할애하여 자녀의 학습을 직접 지도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은 자녀에게 사교육비 지출을 포함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각각의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윤재열(2009)과 김정화(2004)의 연구에서 교육환경 제공이 $\alpha = .82-.83$, 학습지도가 $\alpha = .80-.81$, 자녀교육 지원은 $\alpha = .75-.77$ 로 각각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환경 제공의 경우, 한부모 어머니 집단에서

$\alpha = .84$, 양부모 어머니 집단에서 $\alpha = .79$ 학습 지도는 한부모 어머니 집단에서 $\alpha = .81$, 양부모 어머니 집단에서 $\alpha = .86$ 자녀교육 지원은 한부모 어머니 집단에서 $\alpha = .60$ 양부모 어머니 집단에서 $\alpha = .76$ 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교육적 관여는 학교활동 참관(6 문항), 학교활동 지원(8문항), 교원과의 의사소통(3문항)으로 나뉜다. 학교활동 참관은 부모가 자녀 학교의 각종 행사와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학교활동 지원은 부모가 자녀의 학교에 보다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관여 유형으로, 자원봉사자나 학급관리 및 행사 도우미, 학부모회 임원 등으로 자녀학교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교원과의 의사소통은 학부모와 학교 간의 원활한 협력과 상호이해를 도모하고자 자녀의 교사와 학업, 생활지도 문제를 상의하고 학생 처벌 방식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계수는 윤재열(2009)과 김정화(2004)의 연구에서 학교활동 참관이 $\alpha = .81-.85$, 학교활동 지원은 $\alpha = .77-.80$, 교원과의 의사소통은 $\alpha = .54-.70$ 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활동 참관의 경우, 한부모 집단에서 $\alpha = .74$, 양부모 집단에서 $\alpha = .77$ 로 나타났으며, 교육활동 지원은 한부모 집단에서 $\alpha = .81$, 양부모 집단에서 $\alpha = .84$, 교원과의 의사소통은 한부모 집단에서 $\alpha = .76$, 양부모 집단에서 $\alpha = .72$ 로 나타났다.

사회관계망의 기능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이은혜와 이미리(1996)가 개발한 어머니의 자녀 양육 관련 관계망 질문지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부모 사회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총 11문항 중 부정적 기능인 갈등 · 통제 기능을 묻는 2 문항을 제외하고 자녀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정보제공(4문항), 자녀 학교의 행사 및 학부모 활동에 참가해 주거나 자녀를 돌봐주는 도구적 도움 지원(2문항),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표현과 정서적지지(3문항)에 대한 질문만 포함하였다. 응답자는 자녀 교육 및 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최대 5명까지 떠올리고 그들 각자가 제공한 도움의 내용과 정도를 묻는 총 9문항의 질문에 4점 Likert 척도(“전혀 아니다”=1 부터 “매우 그렇다”=4 까지)로 답했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 별 신뢰도 계수는 한부모 어머니 집단에서 정보제공이 $\alpha = .78$, 도구적 지원은 $\alpha = .77$, 정서적지지 $\alpha = .85$ 였다. 양부모 어머니 집단에서 정보제공은 $\alpha = .75$, 도구적 지원은 $\alpha = .72$, 정서적 지지는 $\alpha = .80$ 이었다.

사회 · 경제적 배경

부모의 사회 · 경제적 배경은 잠재변수로서, 부모의 교육수준, 총 가구소득, 부모의 직업유형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최종 학력을 교육을 받은 연수로 계산하여 중졸 9, 고졸 12, 대졸 16, 대학원 이상은 18의 값을 각각 투입하였다. 부모의 직업 변인은 <한국 표준직업분류>의 직군 분류 기준을 따라 ‘주부/무직/가사’는 1, 생산직은 2, 판매 · 서비스 직은 3, 자영업은 4, 사무직은 5, 전문직은 6의 값을 구조모형 분석에 투입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기술통계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두 단계로 수행되었다. 우선,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

시함으로써 연구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왜도와 첨도를 알아보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자녀 교육에의 관여 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부모 사회관계망 기능 특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통계치와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dex(TL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지수를 모두 참고하여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TLI와 CFI 지수가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평가하며(홍세희, 2000), RMSEA는 .05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결 과

기초 통계 분석

연구변인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기술통계분석하여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 부모의 사회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정보제공과 정서적지지가 도구적 지원의 교류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정 관여 수준은 두 집단 모두에서 교육환경제공과 자녀 교육지원이 학습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학업을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성취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데 더 주력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준다. 한편, 교원과의 의사소통 유형을 제외하고 모든 하위유형에 걸쳐 양부모 집단 어머니의 교육적 관여 수준이 한부모 어머니 집단의 관여 수준

표 1.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N=296)

변인	한부모 어머니(n=132)				양부모 어머니(n=164)				
	M	SD	왜도	첨도	M	SD	왜도	첨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1. 교육수준	12.62	2.29	.54	-.20	13.94	2.23	-.01	-1.39
	2. 총 가구소득	109.77	44.83	1.71	4.97	411.12	178.43	.99	1.45
	3. 직업종류	3.06	1.66	.36	-1.11	2.85	2.03	.46	-1.48
부모 사회관계망 기능적 특성	4. 정보제공	2.62	1.14	-1.53	1.17	3.05	.40	-.67	2.47
	5. 도구적 지원	2.55	.68	-.21	.25	2.28	.65	.04	-.29
	6. 정서적 지지	3.24	.40	-.15	-.35	3.22	.43	-.31	.79
부모의 교육적 관여	7. 교육환경제공	3.85	.60	-.16	.01	3.99	.49	.12	-.03
	8. 학습지도	3.38	.63	-.01	.33	3.57	.65	-.29	.74
	9. 교육지원	3.65	.57	-.06	-.33	3.79	.65	-.47	.54
	10. 학교활동 참관	3.09	.68	.13	-.24	3.45	.68	.01	.25
	11. 학교활동 지원	2.45	.74	.37	.05	2.79	.82	.54	.14
12. 교원과의 의사소통	2.84	.83	.21	.05	2.83	.79	.02	.43	

*p<.05, **p<.01 주. 대각선 아래쪽은 한부모 어머니, 위쪽은 양부모 어머니에 대한 분석결과임.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 참조).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양부모 가정 어머니의 경우, 부모 배경과 교육적 관여행동의 하위 유형 간에 가정에서의 교육적 지원 유형의 관여를 제외하고 대체로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부모 어머니 집단에서는 교육환경 제공, 학습지도, 학교지원, 의사소통 관여 행동과 어머니의 교육수준 사이에만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사회관계망 기능적 특성과 교육적 관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부모와 한부모 집단 모두 도구적 지원은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정서적 지지는 학교지원을 제외한 모든 관여유형과 양부모와 한부모 두 집단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보제공 기능의 경우, 한부모 집단에서는 자녀교육지원과 학교활동지원을 제외한 모든 관여유형과, 양부모 집단에서는 학습지도와 자녀교육지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사회 · 경제적 배경과 가정관여의 관계에서 사회관계망 기능의 매개효과 검증: 한부모 어머니 집단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어머니의 사회 · 경제적 배경과 가정관여와의 관계에서 사회관계망 기능특성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chi^2(24, N=132)=34.450$, CFI=.947, TLI=.905, RMSEA =.054.)가 대안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chi^2(25, N=132)=39.534$, CFI=.925, TLI =.870, RMSEA =.063)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대안모형에 비해 더 적합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χ^2 값 비교를 통해 모형 비교를 실시한 결과,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χ^2 값의 차이는 $\{\Delta\chi^2(1, N=132) = 5.084, p < .05\}$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계수

표 2. 한부모와 양부모 어머니 집단의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교육수준	-	.47**	.15	.27**	-.05	.11	.29**	.34**	-.02	.37**	.33**	.25**
2. 가구소득	.19*	-	.32**	.34**	.03	.22**	.36**	.21*	.11	.36**	.33**	.36**
3. 직업종류	.28**	.16	-	-.06	-.01	.01	.03	-.10	-.03	-.20*	-.13	.01
4. 정보제공	.36**	.05	.12	-	.14	.55**	.24**	.13	.10	.27**	.16*	.20*
5. 도구지원	.08	.03	-.04	.42**	-	.15	-.04	-.01	.05	-.01	.14	.16*
6. 정서지지	.09	-.13	-.02	.38**	.29**	-	.31**	.16*	.19*	.27**	.14	.19*
7. 환경제공	.28**	-.13	-.09	.24**	.11	.26**	-	.66**	.44**	.57**	.36**	.39**
8. 학습지도	.30**	-.06	.01	.22*	.10	.21*	.66**	-	.35**	.61**	.40**	.43**
9. 교육지원	.03	-.07	.01	.09	.05	.34**	.48**	.47**	-	.23**	.16	.25**
10. 학교참관	.17	-.01	-.07	.29*	.13	.36**	.39**	.44**	.32**	-	.67**	.56**
11. 학교지원	.21*	.10	-.03	.15	.22*	.16	.22*	.30**	.27**	.65**	-	.59**
12. 의사소통	.22*	.04	-.09	.19*	.11	.22*	.33**	.40**	.34**	.50**	.54**	-

표 3. 한부모 어머니 집단 가정관여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부분매개)	34.450	24	.947	.905	.054
대안모형(완전매개)	39.534	25	.925	.870	.063

표 4. 각 변수들의 경로계수 (N=132)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사회·경제적 배경 → 사회관계망 기능	.374	.844*	.343
사회관계망 기능 → 가정 관여	.231	.109*	.053
사회경제적 배경 → 가정 관여	.232	.247(ns)	.136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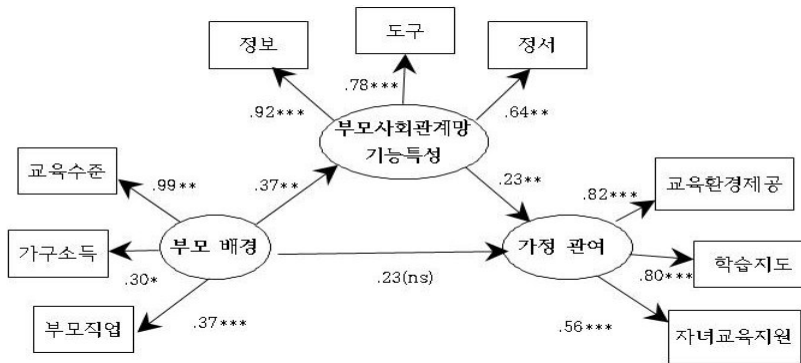


그림 5. 부모배경, 사회관계망 기능, 가정관여의 부분매개모형 경로계수 (한부모 어머니 집단, n=132)

주.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로 * $p < .05$, ** $p < .01$, *** $p < .001$ 에서 유의함.

검증결과는 표 4 및 그림 5에 제시되었다. 분석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사회관계망 기능 특성으로 향하는 경로계수($\beta = .84, p < .05$)와 사회관계망 기능 특성이 가정관여로 향하는 경로계수($\beta = .11, p < .05$)는 정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사회·경제적 배경이 가정 관여로 향하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연구모형에서 사회관계망 기능 특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면, 사회경제적 배경이 가정관여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감소되어,

간접효과만 유의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정관여의 관계에서 사회관계망 기능의 매개효과 검증: 양부모 어머니 집단

다음으로, 양부모 집단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정관여와의 관계에서 사회관계망 기능특성을 매개 변인으로 투입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

하였다(표 5 참조).

분석 결과, 양부모 어머니 집단에서도 연구 모형인 부분매개 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24, N=164)=46.026, CFI=.922, TLI=.854, RMSEA=.075\}$ 가 더 높았다. 반면, 대안모형인 완전매개 모형의 적합도 $\{\chi^2(25, N=164)=53.933, CFI=.898, TLI=.816, RMSEA=.084\}$ 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χ^2 값 비교를 통한 모형 비교를 실시한 결과,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χ^2 값의 차이는 $\{\Delta\chi^2(1,$

$N=164) = 7.907, p < .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평가되었다.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계수 검증결과는 표 6 및 그림 6에 제시되었다. 분석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사회관계망 기능 특성으로 향하는 경로계수 ($\beta=.21, p<.01$)와 사회관계망 기능 특성이 가정관여로 향하는 경로계수($\beta=.37, p<.05$),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가정관여로 향하는 경로계수($\beta=.22, p<.05$)가 모

표 5. 양부모 어머니 집단 가정관여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

모형	χ^2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부분매개)	46.026	24	.922	.854	.075
대안모형(완전매개)	53.933	25	.898	.816	.084

표 6. 각 변수들의 경로계수 (N=164)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사회·경제적 배경 → 사회관계망 기능	.412	.207**	.078
사회관계망 기능 → 가정 관여	.239	.366*	.164
사회경제적 배경 → 가정 관여	.284	.219*	.095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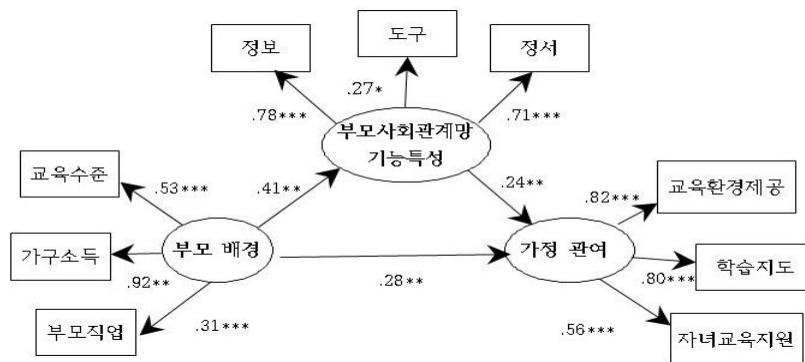


그림 6. 부모배경, 사회관계망 기능, 가정관여의 부분매개모형 경로계수 (양부모 어머니 집단, n=164)

주.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로 * $p < .05$, ** $p < .01$, *** $p < .001$ 에서 유의함.

두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교관여의 관계에서 사회관계망 기능의 매개효과 검증: 한부모 어머니 집단

한부모 집단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교중심 관여와의 관계에서 사회관계망 기능특성을 매개 변인으로 투입한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표 7 참조). 분석 결과, 연구모형인 부분매

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24, N=132)=33.214, CFI=.950, TLI=.907, RMSEA=.054$ }로 나타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대안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chi^2(25, N=132)=35.287, CFI=.945, TLI=.900, RMSEA=.056$ } 역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간의 적합도 지수상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χ^2 값 비교를 통한 모형 비교를 실시하였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χ^2 값의 차이는 { $\Delta \chi^2(1, N=132) = 2.073, p > .05$ }로 유의한 차이가 없

표 7. 한부모 어머니 집단 학교관여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부분매개)	33.214	24	.950	.907	.054
대안모형(완전매개)	35.287	25	.945	.900	.056

표 8. 각 변수들의 경로계수 (N=132)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사회·경제적 배경 → 사회관계망 기능	.42	.815*	.328
사회관계망 기능 → 학교 관여	.35	.191*	.059

*p < .05,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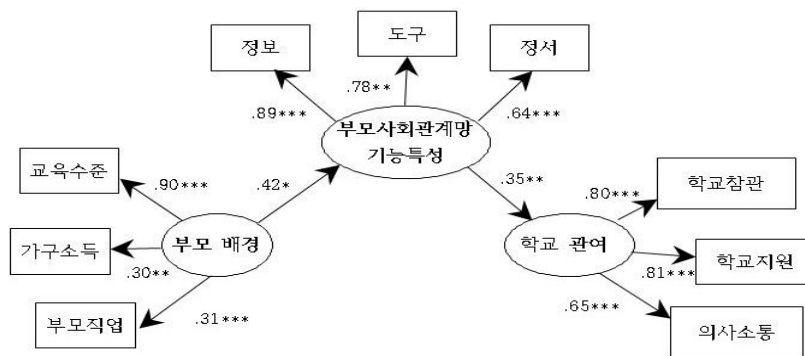


그림 7. 부모배경, 사회관계망 기능, 학교관여의 완전매개모형 경로계수 (한부모 어머니 집단, n=132)

주.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로 *p<.05, **p<.01, ***p<.001에서 유의함

었다. 따라서 간명성을 고려하여 경쟁모형인 완전매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완전매개모형의 경로계수 검증결과는 표 8 및 그림 7에 제시되었다. 분석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사회관계망 기능 특성으로 향하는 경로계수($\beta = .82, p < .05$)와 사회관계망 기능 특성이 학교관여로 향하는 경로계수($\beta = .19, p < .01$)가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교관여의 관계에서 사회관계망 기능의 매개효과 검증: 양부모 어머니 집단

마찬가지로, 양부모 집단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교중심 관여와의 관계에서 사회관계망 기능특성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표 9 참조).

분석 결과, 연구모형인 부분매개 모형의 적합도는 $\{\chi^2(24, N=164)=60.454, CFI=.896, TLI=.805, RMSEA=.097\}$ 로 나타났다. TLI 지

수는 권장수준인 .90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CFI 지수는 약간 미치지 못했고, RMSEA 지수는 .10 미만으로 보통 수준이어서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안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는 $\{\chi^2(25, N=164)=74.549, CFI=.859, TLI=.746, RMSEA=.110\}$ 으로 좋지 못하였다. 또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Delta\chi^2(1, N=164)=14.095, p < .01\}$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모형인 부분매개 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매개모형의 경로계수 검증결과는 표 10 및 그림 8에 제시되었다. 분석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사회관계망 기능 특성으로 향하는 경로계수($\beta = .30, p < .05$)와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학교관여로 향하는 경로계수($\beta = .53, p < .01$)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사회관계망 기능 특성이 학교관여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형에서 사회관계망 기능 특성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교관여에 미치는 직접효과만 유

표 9. 양부모 어머니 집단 학교관여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부분매개)	60.454	24	.896	.805	.097
대안모형(완전매개)	74.595	25	.859	.746	.110

표 10. 각 변수들의 경로계수 (N=164)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사회·경제적 배경 → 사회관계망 기능	.439	.304*	.135
사회관계망 기능 → 학교 관여	.139	.224(ns)	.183
사회경제적 배경 → 학교 관여	.471	.526*	.237

*p < .05,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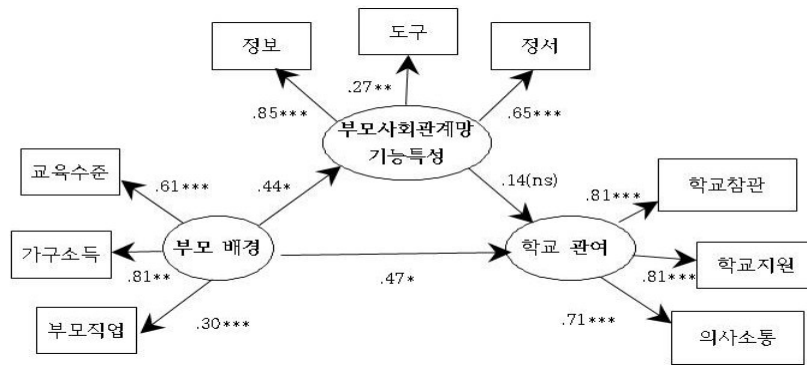


그림 8. 부모배경, 사회관계망 기능, 학교관여의 부분매개모형 경로계수 (양부모 어머니 집단, n=164)

주.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로 * $p < .05$, ** $p < .01$, *** $p < .001$ 에서 유의함

의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적 관여 수준 간 관계에서 사회관계망 기능의 매개효과를 한부모 가정 어머니 집단과 양부모 가정 어머니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선행연구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 가정 어머니는 양부모 가정 어머니 보다 학력 및 소득수준이 낮았으며, 취업률이 높은 가운데에서도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이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망 기능 특성을 살펴보면, 한부모 어머니가 양부모 가정 어머니 보다 관계망 속에서 교육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정도는 낮은 편이었으나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는 오히려 더 빈번하게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상실

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사회관계망과 그에 따른 사회적 지원도 감소하게 된다는 기존 연구(옥선화, 최새은·권소영·강유진, 2004; 조성연, 2003)와는 다소 상반된다. 이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한부모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복지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한부모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은 한부모 어머니들보다 공고한 지지체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모의 교육관여 수준은 교원과의 의사소통 유형을 제외하고 양부모 가정 어머니가 한부모 가정 어머니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물리적, 심리적 자원이 부족한 한부모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지도하고 양질의 상호작용을 갖거나 학교행사에 직접 참여하며 지원하는 데 불리한 여건에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가정중심 관여의 경우, 양부모 어머니 집단에서는 사회관계망 기능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정중심 관여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가정에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학업지도 및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직접 지도하는데 부담을 덜 느끼고 사교육비 등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더 적극적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김영희, 2002; 변수용, 김경근, 2008; 신혜진, 한인영, 2011; Stevenson & Baker, 1987)와 일치한다. 선행연구는 또한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가정에서의 관여 수준이 낮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이윤주, 2010), 이는 어머니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가정에서 자녀의 생활을 지도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세용, 1998; Müller, 1993).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형태를 사회 · 경제적 배경 변인에 포함시켰으므로 한부모 어머니 집단(19.7%)에 비해 비취업모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양부모 어머니 집단(45.1%)에서 어머니의 사회 · 경제적 배경이 가정 관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기존 연구의 논의와 일관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반면, 한부모 어머니 집단에서는 사회관계망 기능을 매개로 할 때, 어머니의 사회 · 경제적 배경이 가정 관여 수준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부모 어머니에 비해 취업모의 비율이 높고 학력과 수입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 한부모 어머니 집단에서 지위변인의 직접적인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사회관계망 기능 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이 가정 관여 수준을 변화시키는데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정보 제공,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원을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여성 한부모 가정의 심리적 안위와

적응에 도움을 주며(김오남, 2005; 박미경, 황성철, 2010), 자녀 양육에 대한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엄미선, 전동일, 2006), 자녀를 보다 합리적이며 온정적으로 지도하는 등 부모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다는 연구결과(박진아, 2009; 최윤정, 이시연, 2007)와 일치한다. 특히, 좋은 부부관계가 자녀를 잘 돌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원체계라는 연구결과(Belsky, 1984; 신숙재, 정문자, 1997)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한부모 어머니의 경우, 배우자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심리적, 물리적, 경제적 지지를 얻는 것이 가정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지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학교 중심 관여의 경우에서도 한부모 어머니의 사회 · 경제적 배경 변인은 관여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부모 가정 학부모에 비해 대체적으로 소득과 학력 수준이 낮고 취업모의 비율이 높은 한부모의 사회 · 경제적 배경이 학교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Epstein, 1984; Kohl et al., 2000)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력 및 소득 수준이 낮은 부모일수록 자녀 학교의 교원을 방문, 면담하는데 심리적인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녀 학교행사나 학부모회 활동 등에 직접 참여하는 빈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Lareau, 1987; Lee & Bowen, 2006; 유희라, 2008; 이세용, 1998).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취업여부도 학교 참여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학교를 방문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관계로 학교활동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Muller, 1993).

한편, 가정 관여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부모 어머니의 학교 참여에서도 지위변인보다 사회관계망 기능의 매개역할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망을 통한 정보제공, 정서적, 도구적 지원이 제공될 때, 한부모 어머니가 학교중심 관여 활동을 실행하는데 직면하는 어려움이 완화되어 학교 참여의 수준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시간적 제약과 경제적 부담(김인배, 2005; 유희라, 2008), 자원봉사에 대한 개인적 능력 부족(임은경, 2010)이 학교참여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학력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취업모로서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많아 양부모 어머니에 비해 자녀 학교활동에 참여하는데 더 많은 장애를 경험하는 한부모에게 사회관계망으로부터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부모 어머니 집단과 달리, 양부모 어머니 집단에서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은 학교 참여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나 사회관계망 기능 특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참여에 있어 관계망의 기능 보다 지위 변인의 설명력이 더 중요함이 입증되었다. 이는 중학교 1학년생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자녀 친구의 부모와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정보, 도움, 호의를 교류한 경험이 많은 부모일수록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학교행사 및 학부모 운영단체 참여에 더 적극적임을 발견한 신혜진(2011)의 연구결과나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학교 내의 타 학부모와

자녀 교육에 대해 더 많이 의논한 부모일수록 학교에서의 교육적 관여 수준이 높음을 보고한 Sheldon(2007)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사회관계망을 타 학부모와의 관계 뿐 아니라, 친족, 친구, 직장동료,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규정한 반면, 앞서 소개된 연구들은 자녀 친구의 부모나 같은 학교 내 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지원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망의 기능이 학교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망을 형성하는 구성원의 차이에 따라 비교하는 연구가 추후에 실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관계망을 통한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원, 정보의 제공이 양부모 어머니의 경우보다 한부모 어머니의 교육적 관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부모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도 활성화시키고 그 속에서 자녀 교육을 지원하는데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시켜 줄 뿐 아니라, 자녀의 학습과 생활을 지도하고 학부모로서 자녀 학교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상담소, 사회복지기관, 학교 등지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한부모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지지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어머니들은 지지 집단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한부모로서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공감, 인정, 격려를 나눌 수 있다. 이는 한부모 어머니들로 하여금 부모로서 자존감과 주체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효과적으로 돕게 할 수 있

다(신혜진, 한인영, 2011). 또한, 한부모 어머니들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 교육에 관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나 자녀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정보 등을 전달할 수 있다. 가족원의 상실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한부모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화법 등을 교육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가 방과 후 교실을 통해 돌봄 서비스와 학습지도를 통합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담당교사가 한부모 어머니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시도함으로써, 학교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 어머니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관계망을 확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퇴근 이후에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거나 실시 장소도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정하여 한부모 어머니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박미경, 황성철, 2010). 무엇보다도, 한부모 어머니를 사회관계망에 참여함으로써 지원을 제공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잠재력을 발견하고 부모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부모인 한부모 어머니들이 모여 자조 집단을 형성하여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면서 이를 자원봉사 형태의 학교참여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회 · 경제적 지위와 교육적 관여의 관계에서 사회관계망 기능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구조방

정식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검증에 사용된 한부모 어머니($n=132$)와 양부모 어머니($n=164$)의 표본수가 다소 충분치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표본수가 충분히 큰 자료로 연구 결과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초등학교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얻어진 것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한부모 어머니 자료는 복지관을 연계하여 수집되었기 때문에, 일반 한부모 어머니 집단에 비해 사회관계망을 상대적으로 잘 형성하고 있고 따라서 다양한 지원도 더 많이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양부모 어머니의 자료도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여 담임 선생님을 통해 수집되었으므로 학부모로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향후에는 어머니의 응답 외에 자녀나 학교 교사가 지각한 부모 관여 수준과 비교하여 분석하여 자료의 편파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한부모 어머니의 경우에도 복지관 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포괄적인 지역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어머니 집단을 한부모 가정의 형성 원인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지 못했다. 예컨대, 이혼한 어머니와 사별한 어머니가 맺는 사회관계망의 양상이 다르며, 심리적 적응도도 다르다고 보고되고 있다(남영옥, 2010; 옥선화, 최새은, 권소영, 강유진, 2004).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혼한 어머니와 사별한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과 부모관여 수준 간의 관계를 비교하여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관계망 구성원에 따라(예: 어머니의 친척, 친구, 사회복지

사 등 전문가) 정보 및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지가 어떠한 양상으로 교류되는지, 그리고 구성원별 관계망 기능 특성의 차이가 교육적 관여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해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곽정인 (2000).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사회 관계망, 부모역할만족도,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2002).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어머니의 자녀 교육관여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13(1), 1-14.
- 김영희, 한경애 (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263-276.
- 김오남 (2005).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 대한가정학회지, 42(1), 129-144.
- 김유심, 곽지영 (2010). 빈곤 여성 가장의 생활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가족 응집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시연구, 11(1), 161-179.
- 김인배 (2005).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방안.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화 (2004). 부모의 교육참여와 자녀의 영재성과의 관계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행섭, 김진숙 (2008). 자녀 스트레스가 여성 한부모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처전략과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9(4), 1567-1584.
- 남영옥 (2010).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비교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3), 219-243.
- 민하영, 이운주, 김경화 (2008). 여성한부모 및 양부모 가정의 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소외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3), 15-23.
- 박미경, 황성철 (2010).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에 따른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의 우울감 및 생활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3), 3-24.
- 박영애, 원효종 (2003).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자녀에 대한 기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2(5), 1-23.
- 박진아 (2009). 한부모 모자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및 모-자녀관계 실태조사: 사회계층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759-778.
- 변수용, 김경근 (2008).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정배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8(1), 39-66.
- 보건복지부 (2006). 200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 신숙재, 정문자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1-16.
- 신혜진 (2011). 중학교 학부모 간 사회관계망이 자녀교육관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18(2), 145-169.

- 신혜진, 한인영 (2011). 초등학교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적 관여에 미치는 영향: 부모사회관계망의 매개효과 검증. *초등교육연구*, 24(3), 349-374.
- 심미옥 (2003).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교육 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6(2), 333-358
- 염미선, 전동일 (2006).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과 사회적 지지. *사회복지리뷰*, 11, 75-108.
- 오승환 (2002).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 / 발표 1: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기능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연구 - 양친가족, 편부가족, 편모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02 한국아동복지학회 제 17회 학술대회, 109-133.
- 옥선화, 최새은, 권소영, 강유진 (2004).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사회관계망 지원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81-191.
- 유희라 (2008).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저해요인 분석. *춘천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재열 (2009). 학부모 교육참여와 학교교육 효과성 인식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두휴 (2007). 학부모 문화연구-자녀교육 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이세용 (1998). 부모의 교육참여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간의 관계. *한국교육*, 25, 114-141.
- 이순형, 이옥경, 민미희 (2006). 아동의 성별, 부모의 이혼 및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81-192.
- 이애재 (2000). 연구논문: 편부모가족 청소년의 부모, 자녀관계와 심리,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7(1), 69-93.
- 이운주 (2010). 취업 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사회자본 특성과 양육스트레스.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1997).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자녀 양육에 대한 난이도 지각과 아동의 발달. *대한가정학회지*, 35(3), 31-45.
- 이은혜, 이미리 (1996).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곤란도 지각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7(2), 61-78.
- 이주리 (2010).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외현화 문제 간 관계: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123-130.
- 이혜승 (2004). 부모의 이혼과 양육형태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학교적응. *청소년학연구*, 11(1), 421-441.
- 임은경 (2010) 초등학교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소희 (2006). 가족구조, 부모양육행동 및 청소년비행 -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30, 185-213.
- 조성연 (2003). 여성 한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자녀양육방법. *한국생활과학회지*, 12(5), 579-593.
- 조혜선 (2004). 조기교육과 어머니 역할. *한국여성학*, 20(1), 123-161.
- 최경일 (2007). 한부모 가정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4(4), 145-168.
- 최명선, 류진아, 박희정 (2007).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경험에 대한 연구: 심리·정서적, 사회·경제적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

- 가족복지학, 12(3), 75-95.
- 최윤정, 이시연 (2007). 한부모 가족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부모역할-대처방식,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1), 123-142.
- 통계청 (2009). 한국의 나라지표, www.index.go.kr
- 호유연 (2009). 한부모 가정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은숙 (2007).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고충 비교연구”. 한부모가정연구, 2(1), 1-20.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 Long, J. S.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Beverly Hills, CA: Sage
- Ceballo, R., & McLoyd, V. (2002).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in poor, dangerous, neighborhoods. *Child Development*, 73, 1310-1321.
- Cochran, M. (1993). Parenting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In Luster, T. & Okagaki, L.(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박성연 · 도현심 · 정승원 역(1996). 부모-자녀관계-생태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4-120.
- Downey, D. B. (1994). The school performance of children from single-mother and single-father families: Economics or interpersonal depriv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15, 129-148.
- Epstein, J. L. (1984). *Single parents and the schools: The effects of marital status on parent and teacher evaluation*(Rep. No.353). Johns Hopkins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Organization of Schools; Baltimore.
- Hill, N. E., & Tyson, D. F. (2009). Parental involvement in middle school: A meta-analytic assessment of the strategies that promote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5, 740-763.
- Jablonska, B., & Lindberg, L. (2007). Risk behaviors, victimization and mental distress among adolescents in different family structures, *Social Psychiatry & Psychiatric Epistemology*, 42, 656-663.
- Jeynes, W. H. (2003). A meta-analysis: The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minority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 and Urban Society*, 35, 202-218.
- Kohl, G. O., Lengua, L. J., & McMahon, R. J. (2000). Parent involvement in school conceptualizing multiple dimensions and their relations with family and demographic risk factor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8(6), 501-523.
- Lareau, A. (1987). Social class differences in family-school relationships: The importance of cultural capital. *Sociology of Education*, 60, 73-85.
- Lee, J., & Bowen, N. K. (2006). Parent involvement, cultural capital, and the achievement gap among elementary school

- childre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3, 193-218
- Li, G., & Christ, T. (2007). Social capital and home literacy engagement: Case studies of low-SES single mothers' access to literacy resources. *English in Education*, 41, 21-35.
- Muller, C. (1993). Parent involv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An analysis of family resources available to the child. In B Schneider and J. S. Coleman (eds.), *Parents, their children and schools*. Boulder: Westview Press.
- Sheldon, S. B. (2007). The role of parents' social networks in children's schooling: Whose social capital is i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Retrieved June 4, 2011, from http://www.allacademic.com/meta/p183774_index.html
- Simons, R., Beaman, J., Conger, R., & Chao, W. (1993). The impact of mothers' parenting, involvement by nonresidential fathers, and parental conflict on the adjustment of 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6, 356-374.
- Stevenson, D. L., & Baker, D. P. (1987). The family-school relation and the child's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 1348-1357.
- 1 차원고접수 : 2011. 8. 8.
심사통과접수 : 2011. 9. 16.
최종원고접수 : 2011. 9. 23.

Mediating Effects of the Functions of Parent's Social Networks between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 Involvement: Comparison of Single-mother and Two-parent Families

Hae Jin Shi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Young Ha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s' social network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 involvement. Parent involvement in the current study was composed of home-based and school-based involvement. Home-based involvement includes providing learning environment at home, guiding child's study habits, and providing educational and financial support. School-based involvement includes supporting child's school-related activities, participating at parent meetings and volunteering, and home-school communication. The subjects were 132 single mothers and 164 mothers from two-parent families, whose children are fifth and sixth graders in Seoul and Inche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for the analysis by adopting SPSS 18.0 and AMOS 18.0. The results showed that single mothers and mothers from two-parent families differ in their structural models. For mothers from two-parent families, socioeconomic status was directly related to home-based and school-based involvement. In contrast, single mother's socioeconomic status only influenced home-based and school-based involvement indirectly through the functional aspects of mother's social networks. The results suggest that parent counseling and parent education programs might be more effective if they encouraged single mothers to exchange resources through their social networks in order to promote parent involvement in elementary schools.

Key words : single mothers,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parent's social networks, parent involvement